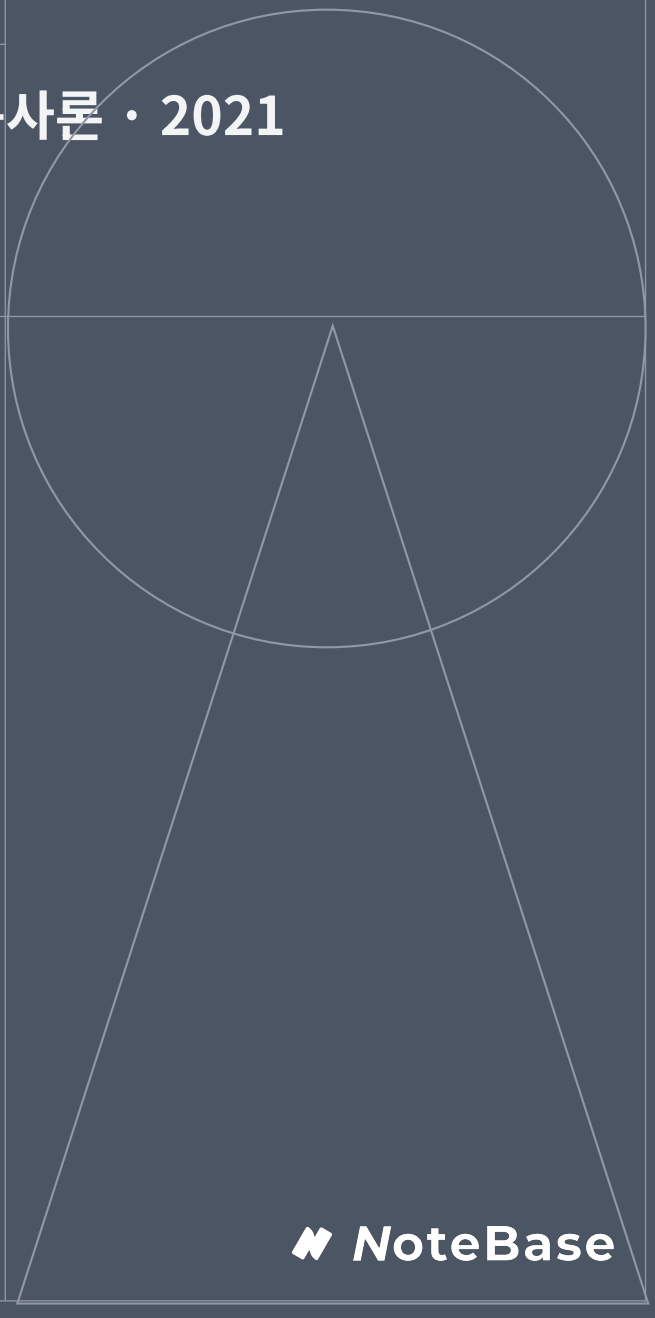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1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1

1. 정보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명칭이었던 '참고(reference)'는 라틴어 'referre'에서 유래되었다.
   ② 나르다, 옮기다, 전하다의 의미를 어원으로 가진다.
   ③ 도와주는 활동, 즉 인적협조에서 출발했다.
   ④ 참고봉사 생성 초기의 활동은 질문 혹은 요구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보서비스의 전통적 명칭인 참고(reference)의 어원과 초기 참고봉사의 활동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참고(reference)는 라틴어 referre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나르다·옮기다·전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초기 참고봉사는 이용자에게 해답을 직접 제공하는 활동이 아니라 해답이 있는 정보원으로 안내하거나 이용자가 해답을 찾도록 돕는 인적협조에서 출발했다. 해답의 직접 제공은 이후에 강조된 정보서비스의 성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전통적으로 사용된 '참고(reference)'는 라틴어 'referre'에서 유래했으므로 옳다.
② O — 'referre'의 어원에는 나르다, 옮기다, 전하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옳다.
③ O — 초기 참고봉사는 이용자가 정보원에 접근하고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인적협조에서 출발했으므로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질문 혹은 요구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초기 참고봉사의 활동은 해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거나 이용자가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오답 포인트

현재의 정보서비스가 질문에 대한 해답 제공을 중시한다는 점을 초기 참고봉사의 성격과 혼동하기 쉽다. ④는 후대에 강조된 직접 정보제공의 성격을 참고봉사 생성 초기의 활동으로 바꾸어 놓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초기 참고봉사’가 나오면 직접 해답 제공이 아니라 정보원으로의 안내와 인적협조를 먼저 연결한다. ‘해답을 직접 제공한다’는 표현은 이후 정보제공 기능이 강조된 단계에 해당하는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초기 reference는 ‘해답 제공’이 아니라 ‘해답이 있는 곳으로 연결하는 인적협조’이다.

NoteBase

2. 다음 지문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컬럼비아대학 도서관학교가 개교되면서 Dewey가 개설한 14개 교과목 가운데 하나로 「독서와 협조」라는 과목이 개설되었다.
> 나. 도서관에서 참고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 연수과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 다.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내에 「참고실」을 독립개설하였다.
> 라. 문헌상 처음으로 참고업무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시도되었다.

① 가 → 다 → 나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다 → 가 → 라 → 나
④ 다 → 가 → 나 → 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참고봉사의 발전 과정에서 참고실의 독립, 도서관학교의 참고업무 교육, 참고업무 용어의 정의, 참고사서 전문교육이 나타난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다 — 컬럼비아대학 도서관에 참고실이 독립 설치되어 참고봉사가 조직적인 업무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2. 가 — 컬럼비아대학 도서관학교가 개교하면서 Dewey가 개설한 14개 교과목 가운데 '독서와 협조'가 편성되었다.
3. 라 — 참고업무의 실무가 전개된 뒤 문헌에서 '참고업무'라는 용어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4. 나 — 참고업무가 전문영역으로 정립되면서 참고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 연수과정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시대 순서는 다 → 가 → 라 → 나이다. 참고실이라는 업무 공간의 독립이 먼저이고, 학교 교육과 용어의 개념화가 이어진 뒤 참고사서 전문 양성 단계로 발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 → 다'는 도서관학교의 개교를 참고실의 독립 설치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고, '나 → 라'도 전문연수과정을 용어 정의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다 → 가 → 라 → 나이다.

② X — '가 → 다'가 틀린 선후관계이다. 참고실의 독립 설치인 다가 도서관학교 개교와 교과목 편성인 가보다 먼저이다. 올바르게는 다 → 가 → 라 → 나이다.

③ O — 참고실 독립 설치(다), 도서관학교의 참고업무 관련 교과목 개설(가), 참고업무 용어의 문헌상 정의 시도(라), 참고사서 특별 연수과정 마련(나)의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 '나 → 라'가 틀린 선후관계이다. 참고업무라는 용어의 문헌상 정의 시도인 라가 참고사서 양성을 위한 특별 연수과정인 나보다 먼저이다. 올바르게는 다 → 가 → 라 → 나이다.

오답 포인트

가와 다가 모두 컬럼비아대학과 관련되어 있어 순서를 바꾸기 쉽고, 라의 용어 정의와 나의 전문교육도 비슷한 전문화 과정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공간·조직의 성립인 다가 교육과정인 가보다 앞서며, 개념의 문헌상 정립인 라가 전문인력 양성인 나보다 앞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참고봉사 발달사는 '현장 조직의 형성 → 학교에서의 업무 교육 → 용어와 개념의 정립 → 전문인력의 별도 양성'이라는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참고실 → 교과목 → 용어 정의 → 참고사서 연수, 즉 다가라나이다.

NoteBase

3. 디지털 장서의 구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집형 장서
② 구독형 장서
③ 협력형 장서
④ 납본형 장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디지털 장서의 구축 방법을 제작형·구입형·구독형·협력형·납본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디지털 장서의 구축 방법에는 제작형, 구입형, 구독형, 협력형, 납본형이 있다. 제작형은 보유한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방식이고, 구입형은 외부에서 생산된 디지털 콘텐츠의 원문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구독형은 원문 접근 라이선스를 구독하며, 협력형은 외부 디지털 장서를 협력 계약으로 연계한다. 납본형은 기관이나 단체·커뮤니티가 생산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출받아 구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수집형 장서'는 디지털 장서 구축 방법의 표준적인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수집형 장서'는 콘텐츠를 직접 디지털화하는 '제작형 장서' 또는 완성된 디지털 원문을 사들이는 '구입형 장서'로 고쳐야 한다.
② O — 구독형 장서는 외부 디지털 콘텐츠의 원문에 대한 접근 라이선스를 구독하는 구축 방법이다.
③ O — 협력형 장서는 외부 기관의 디지털 장서를 협력 계약을 통해 연계하는 구축 방법이다.
④ O — 납본형 장서는 기관이나 단체·커뮤니티에서 생산된 디지털 콘텐츠를 납본받아 구축하는 방법이다.

오답 포인트

'수집'이 장서를 모은다는 일반적인 표현이어서 정식 구축 유형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이다. 이 분류에서는 직접 만드는 방식을 '제작형', 완성된 원문을 사는 방식을 '구입형'이라고 하며, '수집형'이라는 별도 유형은 두지 않는다. 또한 납본형은 인쇄자료에만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출받는 방식도 포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디지털 장서 구축 방법은 콘텐츠의 확보 방식으로 판단한다. 직접 디지털화하면 제작형, 원문을 사면 구입형, 접근권을 계약하면 구독형, 외부 장서를 연계하면 협력형, 생산자로부터 제출받으면 납본형이다.

암기 포인트

디지털 장서 구축의 다섯 유형은 제작·구입·구독·협력·납본이다.

NoteBase

4. 그린(Samuel Green, 1876)이 주장한 정보봉사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제공기능
② 교육기능
③ 상호협력기능
④ 상담지도기능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그린(Samuel Green)이 제시한 정보봉사의 기능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그린은 정보봉사의 기능으로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법을 가르치는 것, 질문에 답하는 것, 좋은 자료의 선택을 돕는 것,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알리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교육기능, 정보제공기능, 상담지도기능, 도서관 홍보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보제공기능은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므로 그린이 제시한 기능에 해당한다.
② O — 교육기능은 이용자에게 도서관과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능이므로 그린이 제시한 기능에 해당한다.
③ X — 상호협력기능은 그린이 제시한 정보봉사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상호협력기능'은 '도서관 홍보기능', 즉 지역사회에 도서관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는 기능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상담지도기능은 이용자가 적절하고 좋은 자료를 선택하도록 돕는 기능이므로 그린이 제시한 기능에 해당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의 '상호협력기능'은 현대 정보서비스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린이 제시한 네 기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빠진 기능은 도서관 홍보기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그린의 기능은 '이용법 교육－질문에 대한 정보 제공－자료 선택 지도－도서관 홍보'의 네 가지로 대조하여 판단한다. 이 목록에 없는 상호협력은 오답으로 판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그린의 네 기능은 교육·정보제공·상담지도·도서관 홍보이다.

NoteBase

5. 도서관이 이용자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보서비스 이론은 무엇인가?
① 교육이론(educational theory)
② 자유이론(liberal theory)
③ 중도이론(moderate theory)
④ 참고과정이론(theory of reference proces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범위와 사서의 역할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가운데, 이용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전제로 하는 이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유이론: 이용자의 요구를 폭넓게 인정하고, 도서관이 모든 이용자의 모든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방법과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키워드는 '모든 이용자의 모든 요구'이다.
교육이론: 사서의 교육적 역할과 이용자의 학습·자립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중도이론: 자유이론과 교육이론의 입장을 조정하여 정보 제공과 교육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이론이다.
참고과정이론: 이용자의 질문을 파악하고 탐색하여 답을 제공하는 참고과정 자체를 중심으로 정보서비스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교육이론은 사서가 이용자의 학습과 정보 활용 능력을 돕는 교육적 역할을 중시한다. 틀린 표현은 '이용자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의무'와 교육이론을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이용자의 교육과 자립적 정보 활용을 돕는 역할을 중시한다'이다.
② O — 자유이론은 이용자의 요구를 가능한 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이용자의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방법과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도서관에 있다고 본다. 제시문의 '모든 요구'와 '제공할 의무'가 자유이론의 핵심 전제에 해당한다.
③ X — 중도이론은 자유이론의 포괄적 제공 입장과 교육이론의 교육적 역할을 조정하는 관점이다. 틀린 표현은 '이용자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의무'를 중도이론의 단독 전제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정보 제공과 교육적 역할을 절충하여 함께 고려한다'이다.
④ X — 참고과정이론은 참고질문을 확인하고 탐색하여 해답을 전달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틀린 표현은 '이용자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의무'를 참고과정이론의 전제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질문 분석부터 탐색과 해답 제공까지의 참고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도서관의 의무’라는 표현만 보고 교육이론이나 중도이론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적 표현은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모든 이용자의 모든 요구’이며, 이는 자유이론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정보서비스의 범위와 사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는다. ‘모든 요구를 폭넓게 충족’하면 자유이론, ‘이용자 교육과 자립’이면 교육이론, ‘두 입장의 조정’이면 중도이론, ‘질문 분석·탐색·해답 제공의 과정’이면 참고과정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모든 요구는 자유, 교육과 자립은 교육, 절충은 중도, 질문에서 해답까지는 참고과정이다.

NoteBase

6. 도서관교육 중, 특정 교과목의 일부로 강의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무엇인가?
① 교과목 통합식 이용교육
② 단체교육
③ 서지교육
④ 정보관리교육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특정 교과목의 수업 내용과 도서관 이용교육을 결합하는 교육 형식의 명칭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과목 통합식 이용교육은 특정 교과목의 일부에 도서관 자료와 정보의 이용법을 연계하여 가르치는 교육이다. 단체교육은 여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 교육의 넓은 범주이고, 서지교육은 정보원과 탐색 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 정보를 찾도록 하는 고급 이용교육이며, 정보관리교육은 주로 전문 분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의 탐색·평가·관리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교과목 통합식 이용교육은 도서관 이용교육을 특정 교과목의 일부로 편성하여 강의하는 형식이므로 제시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 '단체교육'은 여러 이용자를 함께 교육하는 공식적 교육 전반을 가리키는 상위 범주이므로, 특정 교과목과의 통합 여부를 나타내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교과목 통합식 이용교육'이다.
③ X — '서지교육'은 정보원과 검색 도구의 이용 및 탐색 전략을 익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을 가리키며, 특정 교과목의 일부로 강의한다는 형식 자체의 명칭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교과목 통합식 이용교육'이다.
④ X — '정보관리교육'은 주로 전문 분야 이용자에게 정보의 탐색·평가·조직·관리 능력을 기르게 하는 교육으로, 특정 교과목에 도서관 이용교육을 결합한 형식을 뜻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교과목 통합식 이용교육'이다.

오답 포인트

교과목 통합식 이용교육이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② 단체교육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결정적 표현은 교육 대상의 수가 아니라 '특정 교과목의 일부로 강의'한다는 교과목 연계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정 교과목의 일부', '교과 수업과 연계'라는 표현이 나오면 교과목 통합식 이용교육으로 판단한다. '여러 이용자를 함께 교육'하는지만 제시되면 단체교육이라는 넓은 범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교과목 속에 이용교육을 넣으면 교과목 통합식 이용교육이다.

NoteBase

7. 참고면담이 일반적인 면담과 구분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용자의 도서관 또는 사서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계속적인 협조관계의 유지를 위해 행해진다.
② 개인적 프라이버시로 인하여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대부분 즉각적인 해답이 요구된다.
④ 해답의 형태가 구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료에 의해 제시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일반적인 면담과 구별되는 참고면담의 목적, 공개성, 신속성, 해답 제시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참고면담은 사서가 이용자의 실제 정보요구를 밝혀 적절한 정보자료와 해답으로 연결하는 전문적 의사소통 과정이다. 일반적인 면담이 개인의 감정·의견·사적 문제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는 데 비해, 참고면담은 정보요구의 확인, 신속한 응답, 자료에 근거한 해답 제시가 중심이다. 이용자의 질문 내용은 보호해야 하지만, 참고면담 자체가 개인적 프라이버시 때문에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면담인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참고면담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뿐 아니라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에도 사서와 이용자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개인적 프라이버시로 인하여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이다. 참고면담에서도 이용자의 질문과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하지만, 사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일반 면담과 같은 성격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참고면담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확인하는 업무상 면담이며,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이다.

③ O — 참고질문은 이용자가 당면한 정보요구를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대체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해답이 요구된다.

④ O — 참고면담의 해답은 사서의 개인적 견해를 구두로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에 근거하여 제시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프라이버시'라는 말 때문에 비공개가 당연해 보이는 것이 함정이다. 이용자 비밀 보호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참고면담의 대부분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참고면담의 선지는 '정보요구 확인 → 신속한 응답 → 자료에 근거한 해답 → 지속적 협조관계'의 흐름에 맞는지 판단한다. 개인의 사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공개 면담의 특징을 참고면담에 붙이면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참고면담은 정보요구를 밝히고, 신속하게 자료로 답하는 면담이다.

NoteBase

8. 메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론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다.
② Chatman의 정보빈곤모형(information poverty model)은 사회인지적(socio-cognitive) 접근방식을 취한다.
③ Dervin의 의미형성이론(sense-making theory)은 구성주의 관점의 메타이론이다.
④ 모든 연구분야의 이론들은 메타이론을 공유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메타이론의 뜻을 이해하고, Chatman의 정보빈곤모형과 Dervin의 의미형성이론을 각각의 대표 접근방식에 맞게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메타이론은 개별 이론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이론의 존재론적·인식론적·방법론적 전제를 살피는 상위 수준의 이론이다.
Chatman의 정보빈곤모형은 정보빈곤층의 '작은 세계'와 그 안의 사회규범, 내부자·외부자의 구분이 정보의 탐색과 공유를 제한하는 현상을 사회학적·민족지학적으로 설명한다.
Dervin의 의미형성이론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마주한 격차를 해석하고 정보를 구성하여 그 격차를 메우는 과정을 설명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메타이론은 이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론의 전제와 구조를 검토하는 '이론에 관한 이론'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사회인지적(socio-cognitive) 접근방식'이다. Chatman의 정보빈곤모형은 작은 세계의 사회규범과 내부자·외부자 관계가 정보행태를 제약하는 현상을 다루므로, 올바르게는 사회학적·민족지학적 접근방식을 취한다고 해야 한다.
③ O — Dervin의 의미형성이론은 정보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상황 속에서 격차를 인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므로 구성주의 관점의 메타이론에 해당한다.
④ O — 개별 연구이론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현실과 지식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방법으로 탐구할 것인지에 관한 상위 전제를 바탕으로 하므로 메타이론적 토대를 공유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의 '사회인지적'이라는 말은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인지를 함께 다루는 듯 보여 그럴듯하다. 그러나 Chatman의 핵심은 개인의 인지구조보다 작은 세계의 규범과 사회적 경계가 정보행태를 통제하는 방식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명과 핵심 분석 단위를 연결해 판단한다. Chatman은 작은 세계·사회규범·정보빈곤, Dervin은 상황·격차·다리 놓기와 개인의 의미 구성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Chatman = 작은 세계와 사회규범, Dervin = 상황의 격차를 메우는 의미 구성이다.

NoteBase

9. 비언어적 커뮤니케니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세계에 있어서 보편적, 자연적이며 학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② 제스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
③ 우발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④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연성·비규칙성·비통제성 및 언어와의 불일치 가능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표정, 몸짓, 시선, 자세, 목소리의 높낮이 등 언어 이외의 단서로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이다. 대체로 자연스럽고 우발적으로 나타나며, 제스처 등 문화적으로 습득되는 일부 표현을 제외하면 언어처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학습되는 특성'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측면이 크며, 언어처럼 일정한 규칙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인간세계에서 보편적·자연적으로 나타나며, 문화적 제스처 등을 제외하면 별도의 체계적 학습 없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이다.
② O — 제스처처럼 사회·문화적으로 의미가 정해진 표현을 제외하면, 비언어적 신호에는 언어의 문법과 같은 일정하고 명확한 규칙이 없다.
③ O — 표정, 시선, 자세와 같은 비언어적 반응은 우발적·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 쉬워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
④ O — 말로 표현한 내용과 표정·몸짓·목소리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일치 자체가 감정이나 태도를 판단하는 단서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보편적·자연적'이라는 앞부분 때문에 문장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뒤의 '학습되는'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연적·비체계적 성격과 어긋난다. 다만 제스처처럼 문화에 따라 습득되는 일부 표현은 예외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묻는 문항에서는 '자연적·우발적·통제 곤란·규칙 불명확·언어와 불일치 가능'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언어처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된다'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비언어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규칙과 통제가 어렵고, 말과 어긋날 수 있다.

NoteBase

10. 참고서비스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서관 내의 모든 부문에서 특별한 요구에 따른 자료선택에 협조하는 상담지도서비스는 무엇인가?
① 독자상담서비스(reader's advisory service)
② 독서요법(bibliotherapy)
③ 논문작성 상담(term-paper assistance)
④ 연구협조와 자문(research assistance and consultin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참고서비스의 원형으로서 이용자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자료 선택을 돕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자상담서비스(reader's advisory service)는 이용자의 관심, 독서 수준, 목적 등 개별적 요구를 파악하여 알맞은 읽을거리와 자료를 선택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독서요법은 독서를 치료에 활용하고, 논문작성 상담은 학술 과제 수행을 지원하며, 연구협조와 자문은 전문적인 연구 문제의 해결을 지원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독자상담서비스는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맞추어 자료 선택을 돕는 서비스이다. 여러 부문이 협조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자료를 연결한다는 지문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독서요법'이다. 독서요법은 선정된 독서자료를 이용하여 정서적·심리적 문제의 완화나 치료를 돕는 서비스이다. 올바르게는 지문의 서비스가 '독자상담서비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논문작성 상담'이다. 논문작성 상담은 보고서나 논문 같은 학술 과제에 필요한 주제 설정, 정보 탐색, 자료 활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올바르게는 특별한 요구에 따른 일반적인 자료 선택 지원을 '독자상담서비스'라고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연구협조와 자문'이다. 연구협조와 자문은 전문적·심층적인 연구 문제에 필요한 정보 조사와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바르게는 이용자에게 적합한 읽을거리나 자료의 선택을 돕는 서비스를 '독자상담서비스'라고 한다.

오답 포인트

'상담'이라는 공통 표현만 보고 ③이나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지문의 결정적 단서는 '특별한 요구에 따른 자료선택'이며, 이는 치료 목적이나 특정 학술 연구 지원이 아니라 독자에게 맞는 자료를 연결하는 독자상담서비스를 가리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 선택과 읽을거리 추천은 독자상담서비스, 독서를 통한 심리·정서적 치료는 독서요법, 학술 과제 작성 지원은 논문작성 상담, 전문 연구 문제의 심층 지원은 연구협조와 자문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자료 선택은 독자상담, 치료 목적의 독서는 독서요법이다.

NoteBase

11. 다음 Charles Bunge가 제시한 정보서비스 과정의 단계 중 아래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정보 요구	→	2) 질문의 접수
→	3) 질문의 해석	→	4) _____
→	5) _____	→	6) 탐색실시
→	7) _____	→	8) 정보의 전달
→	9) _____		

① 질문의 변환 - 탐색전략 - 연관성 판단 - 적합성 판단
② 탐색전략 - 질문의 변환 - 적합성 판단 - 연관성 판단
③ 질문 확인 - 탐색전략 - 연관성 판단 - 적합성 판단
④ 질문 확인 - 탐색전략 - 적합성 판단 - 연관성 판단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Charles Bunge가 제시한 정보서비스 과정에서 질문을 탐색 가능한 형태로 바꾸고, 탐색 결과와 전달 정보의 타당성을 차례로 판단하는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정보 요구 — 이용자에게 정보가 필요한 상태가 생긴다.
2. 질문의 접수 — 이용자의 질문을 받아들인다.
3. 질문의 해석 — 질문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한다.
4. 질문의 변환 — 해석한 질문을 실제 탐색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
5. 탐색전략 — 탐색어, 정보원, 탐색 방법을 정한다.
6. 탐색실시 — 수립한 전략에 따라 정보를 찾는다.
7. 연관성 판단 — 검색된 정보가 질문의 주제와 관련되는지 판단한다.
8. 정보의 전달 — 선별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9. 적합성 판단 — 전달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제 요구를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질문의 변환 결과가 탐색전략 수립의 입력이 되며, 검색 결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정보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용자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4단계 질문의 변환, 5단계 탐색전략, 7단계 연관성 판단, 9단계 적합성 판단으로 배열되어 전체 절차와 일치한다.

② X — 4·5단계와 7·9단계의 선후가 모두 뒤바뀌었다. 틀린 배열인 '탐색전략 → 질문의 변환 → 적합성 판단 → 연관성 판단'은 올바르게 '질문의 변환 → 탐색전략 → 연관성 판단 → 적합성 판단'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4단계의 '질문 확인'이 잘못되었다. 3단계에서 질문을 해석한 다음에는 질문을 탐색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는 '질문의 변환'이 와야 하므로, 올바른 배열은 '질문의 변환 → 탐색전략 → 연관성 판단 → 적합성 판단'이다.

④ X — 4단계의 '질문 확인'이 잘못되었고, 7단계 적합성 판단과 9단계 연관성 판단의 위치도 바뀌었다. 올바르게는 '질문의 변환 → 탐색전략 → 연관성 판단 → 적합성 판단'이다.

오답 포인트

연관성과 적합성을 같은 의미로 보면 ②나 ④에 끌리기 쉽다. 연관성은 탐색된 정보가 질문의 주제와 관련되는지를 정보 전달 전에 가리는 판단이고, 적합성은 전달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제 요구를 충족했는지를 마지막에 확인하는 판단이다. 또한 3단계 질문의 해석 다음에는 단순한 질문 확인이 아니라 탐색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질문의 변환이 이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를 '질문 파악 → 탐색 준비 → 탐색 실행 → 검색 결과의 연관성 판단 → 정보 전달 → 이용자 요구에 대한 적합성 판단'으로 나눈다. 특히 탐색전략보다 질문의 변환이 먼저이고, 연관성 판단은 전달 전, 적합성 판단은 전달 후라는 선후관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해석한 질문은 변환하여 탐색하고, 찾은 정보는 연관성을 가려 전달한 뒤 적합성을 판단한다.

NoteBase

12. Dervin의 의미형성이론(sense-making theory)의 3요소(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황(situation) ② 격차(gap)
③ 맥락(context) ④ 이용(us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Dervin의 의미형성이론에서 의미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삼요소인 상황(situation), 격차(gap), 이용(use)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Dervin의 의미형성이론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지식의 격차를 인식하고,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삼요소는 상황(situation)·격차(gap)·이용(use)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상황(situation)은 정보 요구가 발생하는 시간적·공간적 조건으로, 삼요소에 해당한다.
② O — 격차(gap)는 현재의 이해와 필요한 이해 사이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단절로, 삼요소에 해당한다.
③ X — 맥락(context)은 Dervin의 삼요소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맥락(context)'은 '이용(use)'으로 고쳐야 하며, 삼요소는 상황·격차·이용이다.
④ O — 이용(use)은 격차를 메우기 위해 획득한 정보가 개인에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뜻하므로 삼요소에 해당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맥락'은 상황과 의미가 비슷해 보이고 정보행태 연구에서 자주 쓰이므로 삼요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정식 연결어는 상황·격차·이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Dervin의 삼각형을 묻는 문항에서는 상황에서 출발해 격차를 인식하고 정보를 이용한다는 흐름으로 판단한다. 이 세 용어 밖의 표현은 삼요소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Dervin의 삼요소 = 상황(situation)·격차(gap)·이용(use)이다.

NoteBase

13. Robert Taylor가 제시한 정보 요구의 형성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conscious need → visceral need → question asked → expressed need

② visceral need → conscious need → question asked → expressed need

③ conscious need → visceral need → expressed need → question asked

④ visceral need → conscious need → expressed need → question asked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Robert Taylor가 제시한 정보 요구가 막연한 내적 필요에서 실제 질문으로 구체화되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visceral need — 무엇이 필요한지 아직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막연한 내적 요구이다.
2. conscious need —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요구를 의식하고 머릿속에서 인식한 단계이다.
3. expressed need — 의식한 요구를 말이나 문장으로 표현한 단계이다.
4. question asked — 표현된 요구를 정보전문가나 정보시스템에 실제 질문으로 제시한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먼저 요구를 의식해야 말로 표현할 수 있고, 표현된 요구가 있어야 이를 실제 질문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conscious need를 visceral need보다 먼저 놓고, question asked를 expressed need보다 먼저 놓아 두 선후관계가 모두 뒤바뀌었다. 틀린 표현은 ‘conscious need → visceral need’와 ‘question asked → expressed need’이며, 올바르게는 ‘visceral need → conscious need → expressed need → question asked’이다.

② X — visceral need → conscious need까지는 맞지만, 실제 질문은 요구를 표현한 뒤에 제시되므로 question asked → expressed need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visceral need → conscious need → expressed need → question asked’이다.

③ X — expressed need → question asked의 후반부는 맞지만, conscious need → visceral need의 앞부분이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visceral need → conscious need → expressed need → question asked’이다.

④ O — 막연한 내적 요구가 의식되고, 말로 표현된 다음, 실제 질문으로 제시되는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expressed need와 question asked를 같은 단계로 보거나 순서를 바꾸기 쉽다. expressed need는 요구를 언어로 표현한 단계이고, question asked는 그 표현을 정보전문가나 정보시스템에 실제로 제시한 단계이므로 expressed need가 먼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 요구가 구체화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막연한 느낌 → 요구의 자각 → 언어로 표현 → 실제 질문’의 흐름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visceral → conscious → expressed → asked, 즉 ‘느낌-자각-표현-질문’의 순서이다.

NoteBase

14. 이용자 사고의 과정 중 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연역법에 기반한다.
② 가설(hypothesis)에 기반한 연구는 하향식 추론을 한다.
③ 귀추법(abduction)은 가정을 선택하는 추론의 한 방법이다.
④ 연역법(deduction)은 가정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용자 연구에서 연역법·귀납법·귀추법의 추론 방향과 근거이론의 연구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역법은 일반적인 이론이나 가정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하향식 추론이다.
귀납법은 관찰한 개별 자료에서 공통된 유형을 찾아 일반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형성하는 상향식 추론이다.
귀추법은 관찰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선택하거나 만들어 내는 추론이다.
근거이론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이론을 생성하므로 귀납적 성격이 강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근거이론은 연역법에 기반한다'이다. 근거이론은 미리 정한 이론에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에서 개념과 이론을 형성하므로, 올바르게는 '근거이론은 귀납적 접근에 기반한다'이다.
② O — 가설에 기반한 연구는 일반적인 이론에서 가설을 세우고 자료로 그 결과를 검증하는 하향식 추론을 사용한다.
③ O — 귀추법은 관찰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설 가운데 가장 적절한 가설을 선택하거나 구성하는 추론이다.
④ O — 연역법은 주어진 일반적 가정이나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구체적 결과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근거이론'에 이론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 연역적 연구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근거이론의 이론은 출발점이 아니라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이며, 핵심 방향은 자료에서 이론으로 올라가는 귀납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론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확인한다. 이론·가정에서 구체적 결과로 내려가면 연역, 관찰 자료에서 일반 이론으로 올라가면 귀납, 관찰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을 고르면 귀추이다.

암기 포인트

연역은 가정→결과, 귀납은 자료→이론, 귀추는 현상→최선의 가설, 근거이론은 자료→이론이다.

NoteBase

15. 전기색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BGMI
② Almanac of Famous People
③ Biography Index
④ Lexicon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생애·경력에 관한 정보를 찾게 해 주는 전기색인과 일반적인 어휘 사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기색인은 인명, 직업, 활동 분야 등의 접근점을 통해 특정 인물의 전기 정보나 그 정보가 수록된 자료를 찾게 해 주는 참고 도구이다. 반면 lexicon은 특정 언어 또는 분야의 낱말과 그 의미를 모아 풀이한 어휘집·사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BGMI는 Biography and Genealogy Master Index의 약칭으로, 인물의 전기 및 계보 정보가 실린 자료를 찾도록 돕는 전기색인이다.
② O — Almanac of Famous People은 유명 인물의 신상·경력 등 전기 정보를 인명 중심으로 조사하는 자료이므로 전기색인에 해당한다.
③ O — Biography Index는 명칭 그대로 인물의 전기 자료를 인명 등의 접근점으로 검색하게 하는 전기색인이다.
④ X — Lexicon은 낱말과 그 뜻을 모아 놓은 어휘집·사전이므로 인물의 전기 자료를 찾는 전기색인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전기색인'이 아니라 올바르게는 '어휘집 또는 사전'으로 분류한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가 영문 참고자료명처럼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④의 Lexicon은 인물 정보가 아니라 어휘와 의미를 다루므로 나머지 세 자료와 기능이 다르다. 또한 발문이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부정형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명에서 Biography, People, Genealogy처럼 인물·생애·계보를 나타내는 말을 먼저 찾는다. 반대로 Lexicon, Dictionary처럼 낱말과 뜻을 나타내는 명칭이면 전기색인이 아니라 사전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Biography·People·Genealogy는 인물 정보, Lexicon은 낱말 정보이다.

NoteBase

16.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서비스와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KAF - 국가전거파일
② 책바다 - 국가상호대차시스템
③ OASIS - 웹자원 아카이빙
④ 책나래 - 범국민 대상 도서기증나눔운동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서비스명과 각 서비스의 기능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AF는 국가전거파일, 책바다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 OASIS는 웹자원 아카이빙 서비스이다. 책나래는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배달하고 회수하는 우편서비스이며, 범국민 도서기증·나눔과 연결되는 명칭은 책다모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KAF는 Korean Authority File의 약칭으로, 저자명·단체명·주제명 등의 표준형과 이형을 관리하는 국가전거파일이다.
② O — 책바다는 원하는 자료가 가까운 도서관에 없을 때 다른 참여 도서관의 자료를 빌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이다.
③ O — OASIS는 인터넷상의 디지털 지식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여 제공하는 웹자원 아카이빙 서비스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책나래 - 범국민 대상 도서기증나눔운동'이다. 올바르게는 '책나래 - 장애인 대상 도서관 자료 무료 우편서비스'이며, 범국민 도서기증·나눔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책다모아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나래'를 책의 나눔 활동으로 연상하면 도서기증 운동과 혼동하기 쉽다. 책나래는 책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오가도록 지원하는 무료 우편서비스이고, 책다모아가 도서기증·나눔과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명의 핵심 기능을 한 단어로 대응한다. KAF는 전거, 책바다는 상호대차, OASIS는 웹 아카이빙, 책나래는 장애인 무료 우편, 책다모아는 도서기증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전거는 KAF, 빌려 오는 것은 책바다, 웹 보존은 OASIS, 장애인 배송은 책나래, 기증은 책다모아이다.

NoteBase

17.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정보 교류'와 가장 관련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① referral service
② invisible college
③ information gateway
④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정보 교류를 가리키는 문헌정보학 용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nvisible college(보이지 않는 대학)는 연구자들이 공식적인 학술지나 학회 발표 이전에도 개인적 접촉, 서신, 대화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비공식적 의사소통망이다.
referral service는 이용자를 적절한 외부 정보원이나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봉사이고, information gateway는 여러 정보원에 접근하도록 안내하는 관문이며,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은 이용자의 관심 분야에 맞는 최신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봉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referral service는 질문에 직접 답하기보다 적절한 외부 정보원·전문가·기관으로 이용자를 안내하는 의뢰봉사이다. 틀린 표현은 ‘referral service’이며, 학계의 비공식적 정보 교류를 뜻하도록 고치면 ‘invisible college’이다.

② O
invisible college는 학자들이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 정보와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네트워크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가장 관련 있다.

③ X
information gateway는 다양한 전자정보원이나 서비스를 한 지점에서 찾고 접근하게 해 주는 정보 관문이다. 틀린 표현은 ‘information gateway’이며, 학자 사이의 비공식적 정보교류망을 뜻하도록 고치면 ‘invisible college’이다.

④ X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은 이용자별 관심 주제나 프로파일에 맞추어 새로 들어온 정보를 선별·배포하는 선택적 정보제공이다. 틀린 표현은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이며, 비공식적인 학술 정보 교류를 뜻하도록 고치면 ‘invisible college’이다.

오답 포인트

네 선지 모두 정보의 전달이나 접근과 관련되지만, ‘학계’와 ‘비공식적 교류’가 함께 제시된 것이 결정적 단서이다. 특히 ④는 정보를 선별해 전달한다는 점에서 교류처럼 보이지만, 이용자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 정보봉사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연구자 사이의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정보 교환이면 invisible college, 외부 기관으로 연결하면 referral service, 정보 접근의 관문이면 information gateway, 관심 분야별 최신 정보의 선별 제공이면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공식 학술 네트워크는 invisible college, 맞춤형 최신 정보 배포는 SDI이다.

NoteBase

18. '국가전자도서관' 참여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립의과학지식센터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③ 세종도서관
④ 국방전자도서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가전자도서관에 자료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참여기관과 참여기관이 아닌 도서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가전자도서관은 국내 주요 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하여 통합 검색과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참여기관 여부는 기관의 명칭에 '국립'이나 '전자도서관'이 들어가는지가 아니라 공식 참여기관 목록에 포함되는지로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의과학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전자도서관 참여기관이다.

② O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학 학술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전자도서관 참여기관이다.

③ X — 세종도서관은 국가전자도서관의 별도 참여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세종도서관'이며, 참여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고치면 옳다.

④ O — 국방전자도서관은 국방·안보 분야 정보를 제공하는 참여기관인 국방대학교 전자도서관을 가리킨다.

오답 포인트

③의 세종도서관은 국립 도서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국가전자도서관 참여기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립도서관인지와 국가전자도서관의 별도 참여기관인지는 같은 기준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관의 일반적 위상이나 명칭으로 추측하지 않고, 국가전자도서관 공식 참여기관과 각 기관의 담당 주제 분야를 짝지어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의과학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대학 학술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방·안보는 국방대학교 전자도서관이며 세종도서관은 별도 참여기관이 아니다.

NoteBase

19. 정보중재서비스(information mediato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참고정보원 개발
② 지적 자유의 견지
③ 일반이용자와 노숙자(homeless)와의 중재
④ 정보서비스 자문회사(consulting firms)를 통한 정보활용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보중재서비스가 이용자의 공정한 정보 접근을 돕는 공공적·전문적 활동인지, 외부 상업기관을 이용하는 행위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보중재서비스는 정보전문가가 이용자와 정보 사이에서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보원과 접근 방법을 연결하는 활동이다. 참고정보원을 개발하고 지적 자유를 지키며 정보 취약계층과 다른 이용자 사이의 정보 접근 문제를 조정하는 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반면 정보서비스 자문회사를 통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외부 상업적 정보서비스의 활용이지, 이 문항에서 묻는 정보중재서비스 자체는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해당)
참고정보원 개발은 이용자의 질문에 적합한 정보를 찾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보원과 탐색 도구를 마련하는 활동이므로 정보중재서비스에 해당한다.

② O(해당)
지적 자유의 견지는 이용자가 검열이나 편견 없이 다양한 관점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활동이므로 정보중재자의 역할에 해당한다.

③ O(해당)
일반이용자와 노숙자 사이의 중재는 공공 정보서비스 공간에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이용자 집단 간의 요구와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이므로 정보중재서비스에 해당한다.

④ X(해당하지 않음)
틀린 부분은 '정보서비스 자문회사를 통한 정보활용'을 정보중재서비스로 본 것이다. 올바르게는 이를 외부의 상업적 정보서비스 또는 정보컨설팅의 활용으로 보아야 하며, 정보전문가가 이용자와 정보 사이에서 직접 수행하는 정보중재서비스와 구별한다.

오답 포인트

④에는 '정보서비스'라는 말이 들어 있어 중재서비스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자문회사를 '통한 정보활용'이라는 외부 상업서비스 이용 방식이다. ③의 노숙자는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기 쉬운 집단이므로, 그 접근권과 이용자 간 요구를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중재의 공공적 역할에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정보전문가의 정보 연결·접근권 보장·이용자 조정 활동이면 정보중재서비스로 판단한다. 이용자가 별도의 자문회사나 상업기관을 통해 정보를 구매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이면 외부 정보서비스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정보중재는 '정보원 개발·지적 자유·정보 접근 조정'이고, 자문회사 활용은 별도의 상업적 정보서비스이다.

NoteBase

20. 다음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정의 중 ㉠, ㉡, ㉢에 해당되는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인쇄자료, (㉠),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① ㉠ 필사자료, ㉡ 온라인자료, ㉢ 이용
② ㉠ 필사자료, ㉡ 전자자료, ㉢ 보존
③ ㉠ 간사자료, ㉡ 전자자료, ㉢ 이용
④ ㉠ 간사자료, ㉡ 온라인자료, ㉢ 보존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의 정의에 들어가는 자료 유형과 도서관의 처리 행위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도서관자료는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 중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필사자료는 손으로 써서 만든 자료이고, 전자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기록·이용되는 자료이다.

핵심 구분

빈칸은 순서대로 '필사자료', '전자자료', '보존'이다. 따라서 정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 완성된다. 현행 「도서관법」 제3조제2호도 같은 핵심 문구로 도서관자료를 정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필사자료'는 맞지만, ㄴ의 '온라인자료'와 ㄷ의 '이용'이 정의 문구와 다르다.
틀린 표현: 온라인자료, 이용
올바른 표현: 전자자료, 보존

② O
'필사자료－전자자료－보존'은 세 빈칸을 법률의 정의 문구와 순서대로 정확히 완성한다.

③ X
ㄴ의 '전자자료'는 맞지만, ㄱ의 '간사자료'는 법률상 열거된 용어가 아니며 ㄷ의 '이용'도 해당 처리 행위가 아니다.
틀린 표현: 간사자료, 이용
올바른 표현: 필사자료, 보존

④ X
ㄷ의 '보존'은 맞지만, ㄱ의 '간사자료'와 ㄴ의 '온라인자료'가 빈칸에 들어갈 열거 문구와 다르다.
틀린 표현: 간사자료, 온라인자료
올바른 표현: 필사자료, 전자자료

오답 포인트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어 ㄴ을 '온라인자료'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자료 유형을 열거하는 해당 위치의 조문 문구는 '전자자료'이며, 마지막 동작도 '이용'이 아니라 '수집·정리·보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 유형의 열거는 '인쇄－필사－시청각－마이크로형태－전자'의 순서로 확인하고, 도서관의 처리 행위는 '수집－정리－보존'의 세 단어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자료는 '인필시마전', 처리는 '수정본(수집·정리·보존)'으로 기억한다.

NoteBase

21. GVR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Library Journal에서 2012년 전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로 선정되었다.
② EBSCO가 자체 제작한 온라인 전문서비스이다.
③ 인문, 사회, 기초과학 및 의약 분야에 이르는 학술 전 분야의 reference book을 제공한다.
④ 수록된 자료를 주제어 또는 키워드 중심의 article 단위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GVRL의 제작·제공 기관과 수록 자료의 범위, 검색 방식에 관한 기본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GVRL(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은 Gale이 제공한 온라인 참고도서 데이터베이스이다. 여러 학문 분야의 백과사전·사전·편람 등 참고도서를 원문으로 제공하며, 도서 안의 항목 단위까지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GVRL은 Library Journal에서 2012년 전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로 선정된 바 있으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EBSCO가 자체 제작한'이다. GVRL은 EBSCO의 서비스가 아니라 Gale이 제작·제공한 온라인 참고도서 데이터베이스이다.
③ O — 인문·사회·기초과학·의약 등 여러 학문 분야의 reference book을 제공하므로 옳다.
④ O — 수록 참고도서를 주제어나 키워드로 검색하고, 도서 전체뿐 아니라 개별 항목(article) 단위로 찾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온라인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EBSCO와 GVRL의 제작사인 Gale을 바꾸어 놓았다. 서비스의 기능이 비슷해 보여도 데이터베이스명과 제공 기관의 연결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데이터베이스 문항에서는 먼저 '누가 제공하는가'를 확인하고, 이어서 '무슨 자료를 어떤 단위로 검색하는가'를 판단한다. GVRL은 Gale, 참고도서, 항목 단위 검색이라는 세 기준으로 판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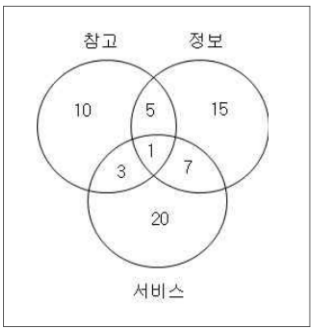
NoteBase

암기 포인트

GVRL은 Gale의 온라인 참고도서 데이터베이스이며, EBSCO의 자체 제작 서비스가 아니다.

NoteBase

22. 다음 탐색문 중 가장 많은 문헌이 검색되는 것은 무엇인가?(단, 그림 안의 숫자는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헌 수이다.)



① 참고 AND (정보 OR 서비스)
② (정보 OR 서비스) NOT 참고
③ (참고 OR 정보) AND 서비스
④ (참고 NOT 정보) OR 서비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불리언 검색식의 AND는 교집합, OR는 합집합, NOT은 제외를 뜻한다. 각 검색식이 포함하는 벤 다이어그램의 배타적 영역을 한 번씩 더해 검색 문헌 수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참고만 10, 정보만 15, 서비스만 20이다. 참고·정보만 겹치는 영역은 5, 참고·서비스만 겹치는 영역은 3, 정보·서비스만 겹치는 영역은 7, 세 영역의 공통 부분은 1이다. OR로 묶인 겹침 영역은 중복하여 더하지 않으며, NOT 참고는 참고 영역과 겹치는 부분을 모두 제외한다.

사용할 공식

선택된 검색 영역의 문헌 수 = 그 영역에 속하는 배타적 구역의 수를 한 번씩 더한 값이다. 집합으로는 AND가 $A \cap B$, OR가 $A \cup B$, A NOT B가 $A \cap B^{c}$에 해당한다. 벤 다이어그램의 각 숫자가 서로 겹치지 않는 구역별 문헌 수로 주어졌으므로 이 원리를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① 참고 AND (정보 OR 서비스): 5 + 3 + 1 = 9
② (정보 OR 서비스) NOT 참고: 15 + 20 + 7 = 42
③ (참고 OR 정보) AND 서비스: 3 + 7 + 1 = 11
④ (참고 NOT 정보) OR 서비스: 참고에만 속하는 10과 서비스 전체를 합하므로 10 + (20 + 3 + 7 + 1) = 41
따라서 검색 문헌 수는 ②의 42가 가장 많다.

선지 판단

① X — 참고이면서 정보 또는 서비스인 영역은 5, 3, 1이므로 9건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참고 AND (정보 OR 서비스)는 9건을 검색한다'이다.
② O — 정보 또는 서비스에 속하면서 참고에는 속하지 않는 영역은 15, 20, 7이므로 42건이며 네 검색식 중 가장 많다.
③ X — 서비스 안에서 참고 또는 정보와 겹치는 영역은 3, 7, 1이므로 11건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참고 OR 정보) AND 서비스는 11건을 검색한다'이다.
④ X — 참고 NOT 정보에서 서비스 밖에 새로 포함되는 부분은 참고만의 10이고, 여기에 서비스 전체 31을 합하면 41건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참고 NOT 정보) OR 서비스는 41건을 검색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NOT 참고를 '참고만 10을 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참고와 정보·서비스가 겹치는 5, 3, 1도 모두 제외해야 한다. 또한 ④에서는 참고 NOT 정보에 포함되는 참고·서비스 영역 3이 서비스에도 포함되므로 두 번 더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AND는 겹치는 부분만, OR는 어느 한쪽이라도 포함되는 부분, NOT은 뒤에 오는 집합을 제외하는 것으로 표시한다. 그다음 선택된 배타적 구역의 숫자를 각각 한 번만 더한 뒤 선지별 합계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AND는 공통, OR는 합침, NOT은 제외이며, 벤 다이어그램의 한 구역은 한 번만 센다.

NoteBase

23. 가장 많은 탐색어를 제시할 수 있는 시소러스 관계는 무엇인가?

① USE ② UF(Used For)
③ NT ④ RT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시소러스의 등가 관계(USE·UF), 계층 관계(NT), 연상 관계(RT) 가운데 탐색어를 가장 폭넓게 확장할 수 있는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USE: 비우선어에서 검색에 사용할 우선어로 안내하는 등가 관계이다.
UF(Used For): 우선어 아래에 그 우선어 대신 사용되지 않는 비우선어를 제시하는 등가 관계이다.
NT(Narrower Term): 현재 용어보다 의미 범위가 좁은 하위어를 제시하는 계층 관계이다.
RT(Related Term): 동의어나 상·하위어는 아니지만 의미상 관련된 용어를 연결하는 연상 관계이다. 등가 관계와 계층 관계의 범위를 넘어 여러 관련 개념으로 탐색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가장 많은 탐색어를 제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USE는 비우선어를 우선어로 바꾸어 검색하도록 안내하는 등가 관계이므로 탐색어를 여러 관련 개념으로 확장하는 관계가 아니다. 틀린 선택은 USE이며, 가장 많은 탐색어를 제시할 수 있는 관계로 고치면 RT이다.
② X — UF는 하나의 우선어에 대응하는 비우선어를 보여 주는 등가 관계로, 동의·유사 표현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틀린 선택은 UF이며, 관련 개념 전반으로 탐색어를 넓히는 관계로 고치면 RT이다.
③ X — NT는 특정 개념의 하위 개념만 제시하는 계층 관계이므로 확장 방향이 좁은 용어로 제한된다. 틀린 선택은 NT이며, 계층 밖의 관련 용어까지 제시하는 관계로 고치면 RT이다.
④ O — RT는 비계층적인 연상 관계를 통해 주제와 의미상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제시하므로 가장 폭넓은 탐색어 확장이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UF나 NT에도 여러 용어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UF는 등가 표현, NT는 하위 개념이라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확장되고, RT는 동의·상하 관계 밖의 다양한 관련 개념을 연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소러스 기호를 관계 유형으로 먼저 분류한다. USE·UF는 등가 관계, BT·NT는 계층 관계, RT는 연상 관계이다. 탐색어를 가장 넓게 제시하거나 관련 주제로 확장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RT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USE·UF는 같은 뜻, BT·NT는 위아래, RT는 옆으로 넓히는 관련어이다.

NoteBase

24. 다음 중 적합성 판단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가. subjective relevance 나. pertinence 다. topicality 라. situational relevance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적합성 판단을 시스템이 문헌과 질의의 주제 일치로 판정하는 객관적 관점과 이용자의 지식·과업·상황을 반영하는 주관적 관점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ubjective relevance: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요구와 맥락에 따라 판단하는 주관적 적합성이다.
pertinence: 검색된 정보와 이용자의 지식 상태 및 인지적 정보요구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인지적 적합성이다.
topicality: 질의에 표현된 주제와 문헌이 다루는 주제가 일치하는 정도를 뜻하는 주제적 적합성이다. 이 분류에서는 시스템 중심의 객관적 판단에 해당한다.
situational relevance: 검색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제 과업이나 문제 상황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나타내는 상황적 적합성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 subjective relevance'를 성격이 다른 항목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subjective relevance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맥락에 따른 주관적 판단이므로 이용자 중심 적합성이다. 올바르게는 나와 라처럼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는 적합성으로 분류한다.

② X
- '나. pertinence'를 성격이 다른 항목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pertinence는 이용자의 지식 상태와 인지적 정보요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지적 적합성이다. 올바르게는 가와 라처럼 이용자 중심 적합성으로 분류한다.

③ O
- '다. topicality'는 질의의 주제와 문헌의 주제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제적 적합성이다. 이용자의 인지 상태나 실제 상황보다 질의와 문헌의 주제 관계에 초점을 두는 시스템 중심의 객관적 성격이므로 나머지와 다르다.

④ X
- '라. situational relevance'를 성격이 다른 항목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situational relevance는 정보가 이용자의 실제 과업이나 문제 해결에 유용한지를 판단하는 상황적 적합성이다. 올바르게는 가와 나처럼 이용자 중심 적합성으로 분류한다.

오답 포인트

pertinence와 situational relevance가 모두 특정한 적합성 유형이어서 topicality와 같은 층위로만 보이기 쉽다. 그러나 pertinence는 이용자의 인지적 요구, situational relevance는 실제 과업의 유용성을 반영하는 반면, topicality는 질의와 문헌의 주제 일치 자체를 본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판단 기준에 이용자의 지식, 정보요구, 과업, 문제 상황이 들어가면 이용자 중심의 주관적 적합성으로 본다.
질의와 문헌의 주제가 같은지만 판단하면 topicality로 본다.

암기 포인트

topicality는 주제 일치, pertinence는 인지적 필요, situational relevance는 실제 상황의 유용성이다.

NoteBase

25.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검색 성능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 1) 데이터베이스 A에서 '검색 성능'이 출현하는 문헌은 50개이다. 조건 2) 데이터베이스 A에서 홍길동은 '검색 성능'으로 탐색하여 100개의 문헌을 검색결과로 얻었다. 조건 3) 100개 검색결과를 확인한 결과, 홍길동이 원하는 '검색 성능'에 대한 적합한 문헌의 수는 25개였다.

① 정확률은 25%이다.
② 재현율은 50%이다.
③ 누락률은 25%이다.
④ 잡음률은 75%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검색 성능 평가 지표인 정확률, 재현율, 누락률, 잡음률의 분모와 분자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데이터베이스 A의 전체 적합 문헌은 50개이다.
검색된 문헌은 100개이다.
검색된 문헌 중 적합 문헌은 25개이므로, 검색되지 않은 적합 문헌은 25개이고 검색된 부적합 문헌은 75개이다.

사용할 공식

정확률은 검색 결과 중 적합 문헌의 비율이므로 정확률=검색된 적합 문헌 수검색된 전체 문헌 수이다.
재현율은 전체 적합 문헌 중 검색된 적합 문헌의 비율이므로 재현율=검색된 적합 문헌 수전체 적합 문헌 수이다.
누락률은 전체 적합 문헌 중 검색되지 않은 적합 문헌의 비율로, 누락률=1-재현율이다.
잡음률은 검색 결과 중 부적합 문헌의 비율로, 잡음률=1-정확률이다.

계산 과정

정확률=(25)/(100)×100=25\%
재현율=(25)/(50)×100=50\%
누락률=(50-25)/(50)×100=50\%
잡음률=(100-25)/(100)×100=75\%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정확률은 검색된 100개 중 적합한 25개의 비율이므로 25%이다.
② O — 재현율은 전체 적합 문헌 50개 중 검색된 적합 문헌 25개의 비율이므로 50%이다.
③ X — '누락률은 25%이다'가 틀렸다. 검색되지 않은 적합 문헌은 25개이지만, 누락률의 분모는 검색 문헌 100개가 아니라 전체 적합 문헌 50개이므로 올바르게는 '누락률은 50%이다'이다.
④ O — 잡음률은 검색된 100개 중 부적합한 75개의 비율이므로 75%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누락된 적합 문헌의 개수 25를 검색 결과 수 100으로 나누게 만드는 함정이다. 누락률은 재현율의 보수이므로 25%가 아니라 $1 - 50\% = 50\%$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전체 적합 문헌, 검색된 전체 문헌, 검색된 적합 문헌을 구분한다. 그다음 정확률·잡음률은 검색된 전체 문헌을 분모로, 재현율·누락률은 전체 적합 문헌을 분모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검색 결과 안에서는 정확률+잡음률=100%, 전체 적합 문헌 안에서는 재현율+누락률=100%이다.

NoteBase